



3면

민주 "카이 경찰 장악" 군사작전 뒷배"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음 6월 29일) 제306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선8기 대기업 유치 공약 '청신호'

전북도-김제시-두산
693억 규모 투자협약
지평선산단에 공장 신설
110개 일자리 창출 전망



26일 전북도청 회의실(4층)에서 열린 (주)두산-전북도-김제시 투자협약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양동보 (주)두산 전자기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두산이 김제에 핵심부품인 동박 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의 대기업 유치 공약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김제시는 도청 회의실(4층)에서 (주)두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영자 김제시 의장, 양동보 (주)두산 전자기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두산과 전북도, 김제시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인쇄회로용 기판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김제에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주)두산전자는 1974년 창립한 이래 반도체, 통신장비 등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김제에 공장을 설립하는 동박적층판 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확보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8만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로 11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투자가 완료되면 김제 지평선산단의 분양률은 95.5% 가동률은 70%에 이르러 산단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두산전자는 향후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어 김제시가 (주)두산전자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주)두산 양동보 전자기사업본부장은 김제시 신규투자 이유로 기존 익산 공장과 근접성, 교통·물류의 편리성

등을 언급하며, "김제시에 생산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주)두산과 같은 대기업의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세효과로 김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체계적인 수준의 핵심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두산이 전북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 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몰심양면으로 돕겠다"며, "(주)두산의 이번 투자는 우리 지역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임기 내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의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앞으로도 공약 이행은 물론 전북 경제를 혁신해 함께 성공하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김제=곽노태기자

올 전북 청소년 상담축제, 가상공간에서

오비스에서 내달 5일 진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제11회 전라북도청소년상담축제'를 확장 가상세계에서 8월 5일 개최한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이다.

이번 상담축제는 비대면 축제를 통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상공간 오비스(OVice)에서 비대면 상담인 '상담해 ZOOM'과 '메타버스 부스'의 두 방향으로 운영된다.

'상담해 ZOOM'은 개인상담 부모교육, 또래상담 훈련을 받은 또래 상담자들이 용례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과 대인관계 및 감정 찾기를 주제로 한 화상 집단상담으로 꾸려진다.

'메타버스 부스'는 전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부스를 가상공간 오비스(OVice)안에 구현해놓은 콘텐츠다. 솔리언 또래상담, 청소년동반자, 일시보호시설,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꿈드림카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과 위생용품 신청, 꿈드림 자치기구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체험 학교 밖 권리침해 실태 등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O/X 퀴즈, 청소년 관련 골든벨 퀴즈, 환경 관련 퀴즈 등 다양한 주제의 이벤트 부스도 마련됐다.

26일 개막식에서는 도내 우수 청소년 2명에 대한 전북도지사 표창 시상식 및 솔리언 또래상담자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이 메타버스에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온라인 축사를 통해 "이번 상담축제가 청소년들이 진지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미래에 대한 희망, 자신에 대한 긍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축제 누리집(네이버에 '전라북도청소년상담축제@김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s://talk2022.ovice.in>을 입력하면 바로 메타버스 축제장 접속도 가능하다. /김경수 기자

"전라중 이전부지 '미래교육캠퍼스' 들어서야"

서 교육감, 교육부 찾아
장상윤 차관 등과 면담
활용 계획 변경 건의
전주 중학교 2곳 통합 조건
이행기간 2년 재연장
에코시티 교교 신설도 요청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 오른쪽)이 26일 교육부를 찾아 장상윤 차관(왼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이 전라중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 계획 변경을 교육부에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26일 교육부를 방문, 장상윤 차관을 비롯해 교육복지정책 국장, 지방교육재정 과장, 교육안전정보 국장, 교육시설 과장 등과 차례로 면담했다.

당초 전라중 이전부지는 전주교육지원청 이전을 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서 교육감은 전주의 가장 중심지인 곳에 행정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북의 많은 학생들이 미래기술을 직접

미래교육캠퍼스는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직업체험관, 미래교육공유관, 세계시민&국제협력관으로 구성,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 중학교 2곳의 적정규모화 이행 기간 재연장도 건의했다. 전주화정중학교와 양현중학교를 신설하면서 전주 구도심 중학교 2개교에 대해 폐교를 조건으로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올해 12월까지 적정규모화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전임자 시절 조건부 이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 1개월을 남겨놓고 갑작스레 7개교에 대해 폐교 대상학교로 지정하면서 반발을 불러왔다. 더욱이 현 교육감 취임 1개월이 채 안된 상황에서 12월까지 2개교를 폐교 또는 통합할 수 없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기간 2년 재연장을 요청했다.

끝으로 에코시티 내 고등학교 신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